

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

-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, 북한강유역에서의 수자원 공동 이용 및 재해방지에 대한 협력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
 - 북한의 임남댐(금강산댐) 건설로 인해 용수가 차단됨에 따라 일어나는 생태계의 변화와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지 않음
- 신정부의 중점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계획의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책 수립 필요
 -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
 -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
- 단계별 협력사업의 추진방안
 - 남북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“개방추진기”에는 임남댐과 평화의 댐의 평화적 이용방안 추진 및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 조사
 -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“개방확대기”에는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협력방안 마련, 수변 관광벨트화 추진
 - 통일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“개방정착기”에는 북한강유역의 평화지대화 설치 및 남북연계 관광벨트 조성

1. 북한강유역의 교류협력 현안

- 경의·동해선 교통망 연결, 개성공단 건설, 금강산 관광의 확대 등 남북한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, 북한강유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수자원 공동 이용 및 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제도적 지원방안은 미흡함
 -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(금강산댐)을 건설함으로써 발생한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유엔사 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
- 북한강 수계 안변청년발전소의 조업용 댐인 임남댐이 남쪽으로 흐르는 용수를 차단하여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북한강유역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, 하류에 위치한 댐의 전력생산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
 -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에 활용되는 임남댐은 북한강의 용수유입량을 크게 감소시켜 생태계 변화와 수질오염, 전력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
-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 명시하고 있는 “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으로 단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

2.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

●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

- 임남댐이 건설됨에 따라 남북한 공유하천에서의 수자원 이용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
-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

●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효율적인 국토자원의 이용

- 남북한 접경지역은 방대한 면적이 군사작전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귀중한 국토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평화적인 활용이 요구됨
- 국토의 중심지대인 북한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및 토지자원 그리고 생태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

●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

- 북한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공동 이용, 관광자원의 개발, 재해의 공동 대처,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, 전력생산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

● 접경지역 정주생활 개선 및 생활권의 복원

-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접경지역 내 생활권이 차단됨으로써 심화된 생활환경의 불편함과 낙후성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함

3.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 방향 및 사업의 선정

● 기본방향

- 수자원의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
- 홍수 및 한해의 공동 대책수립을 통한 사전 피해방지 및 공동 대처
-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계획 수립과 지원제도 마련
- 북한강유역의 산림녹화를 통한 재해의 근원적인 예방
- 역사적 유적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공동 발굴 및 보존 작업 추진
-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
- 공공차원에서 민간으로 협력주체 확대 및 협력사업의 단계적 연계방안 수립

[표] 분야별 주요 협력사업의 선정

구분	세부 협력사업
교통망 연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도 5호 및 31호 연결 • 인제군 서화에서 금강산, 양구군 방산면에서 금강군으로 지방도로 연결
수자원 공동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남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 관리 • 임남댐의 다목적 댐 전환과 전력 공급
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•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•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• 북한강 상류 및 접경지역 산림황폐지역의 산림녹화 사업
산업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광협력으로 수변관광벨트 추진 및 금강산 관광연계 • 농업협력으로 임남댐 주변과 양구 해안 편치볼에 통일농장 조성 및 특용작물농장 육성
문화·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사유적 등 역사적 유적지 발굴 및 공동 보전방안 마련 •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시설 설치

● 협력사업의 선정

- 사업의 세부 평가기준은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, 남북한 상호 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,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·역사적 자원의 보전, 북한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,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있음
- 대상사업으로는 임남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 활용 및 전력협력, 생태계 공동 조사 및 생태공원화,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, 북한강유역 산림녹화, 시범농장 및 농업기반 확충, 단절된 교통망 복원, 수변 관광벨트화 추진 및 내륙관광연계, 문화·역사적 유적의 공동 조사 및 연계화 등을 들 수 있음

4.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

● 추진단계의 설정

- 추진단계는 “개방추진기”, “개방확대기”, “개방정착기” 등 3단계로 구분함
 - “개방추진기”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서 남북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
 - “개방확대기”는 북한이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
 - “개방정착기”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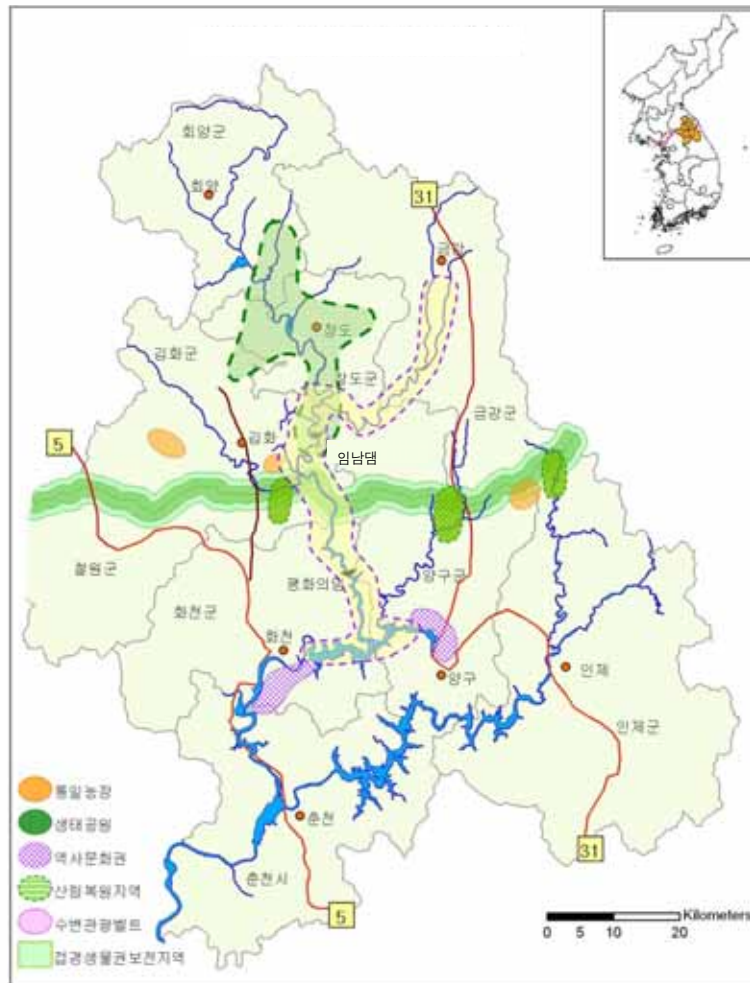
● 추진단계별 주요 협력사업

- “개방추진기”의 주요 협력사업
 - 임남담과 평화의 댐 평화적 이용방안 추진
 -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 조사,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설치 추진
 - 접경지역에서의 재난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
 - 북한강유역 산림녹화
 - 시범농장 및 농업기반 확충
- “개방확대기”의 주요 협력사업
 - 임남담과 평화의 댐의 연계 이용방안 마련
 - 교통망 복원
 - 비무장지대 및 주변접경지역 생태자원의 공동 이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
 - 문화·역사적 자원의 공동 조사 및 연계화 방안 마련
 - 북한강유역 수변의 관광벨트화 추진

○ “개방정착기”의 주요 협력사업

-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북한강유역의 평화지대화 설치
- 금강산·설악산 남북관광특구와 연계한 중·동부내륙 관광벨트 조성

【그림】 북한강유역의 교류협력사업



●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김영봉 소장 (031-380-0151, ybkim@krihs.re.kr)

※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 정책과제(김영봉 외, 2005. “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”. 국토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, 재정리한 것임